

# 우리쇠고기, 우리육우 먹고 힘내자

2016 육우데이 기념행사 성료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현주)는 6월 9일(목) 육우데이를 맞이해 서울시 도봉구 소재 농협 하나로클럽 창동점에서 ‘우리 소고기, 우리 육우 먹는 날’을 슬로건으로 2016 육우데이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육우데이 기념행사에는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및 축산관계자, 육우사육농가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개그맨 김준현이 일일 홍보대사로 기념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육우 알리기에 힘을 보탤다.

육우데이 기념식에 이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육우고기 시식행사와 지역주민(어르신)을 초청해 육우비빔밥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판매처가 부족해 평소에 육우고기를 쉽게 접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육우구이를 맛본 후 “육우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냐”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소비자 접점 확대 및 육우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수원점, 전주점, 인천점, 광주점 등 전국 각지 육우고기 판매처에서 할인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육우데이가 해마다 소비자의 관심 속에 육우를 먹으면서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육우 시식 행사와 부대행사 이외에도 소비자가 직접 육우를 구매할 수 있는 할인행사까지 마련된 만큼 맛은 물론 가성비까지 뛰어난 육우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호 본회 회장은 “육우산업은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음은 물론, 판매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소비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 가격경쟁력까지 겸비한 자랑스런 우리 육우가 소비자로부터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㉞

〈정리 : 교육홍보부 장지현 대리〉